



포장 전문가 초청해 실용적 기법 선보여

# 정성 주고 기쁨 받는 선물 포장의 세계

Siba 2003 부대행사로 기획된 '포장세미나'는 포장도 제과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였다. 포장업계의 유명 강사를 초청해 나흘 간 진행된 세미나에는 많은 관람객이 참석해 요즘 부쩍 높아진 포장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과점에서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수강생들은 강사와 함께 직접 실연하며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한국여성고자경영회의 회원들이 도우미로 나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했다.

〈정리·허윤정 / 사진·안성철, 박성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초청 강사	(사)한국선물포장디자이너협회 김명숙 이사장	화수회 랩핑스쿨 이현수 회장	(사)한국선물포장협회 황인자 이사장	화수회 랩핑스쿨 이현수 회장
주제	보자기 사용한 전통포장 응용	크리스마스용 제품 포장	선물 기본 포장	부직포 이용한 포장



실연 강사 김명숙

(사)한국선물포장디자이너협회 이사장

모아디자인아카데미 회장

일본 마미플라워 디자인스쿨 등록강사

사이버 아트센터 강사

산업인력 공단 강사

동아문화센터 강사

삼성문화센터 강사

## 보자기의 화려한 변신

포장세미나 첫날인 10월 16일에는 '전통포장을 응용한 제품 포장'을 주제로 관람객을 찾아갔다. 실연 강사로는 (사)한국선물포장디자이너협회 김명숙 이사장이 초빙돼 보자기를 이용한 다양한 포장법을 소개했다. 보자기는 전통 혼례에서 패물이 든 함 등 격식을 갖춘 포장을 할 때 사용되는 소재. 김명숙 이사장은 "양지나 한지 등 종이 아닌 천이 주는 독특한 질감을 살릴 수 있어서 보자기로 더욱 가치있는 포장을 할 수 있다"고 세미나 주제를 설명했다. 최근 호텔에서 와인 등의 상자를 보자기로 포장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제과점에서 고급품목이나 기획상품 등의 보자기 활용을 강조했다.

보자기를 이용한 포장은 공정이 간단하고 별도의 재료나 도구가 따로 필요없어 간편하게 응용할 수 있다. 다만 여타 포장재료보다 비싼 제작비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부직포 등 비슷한 느낌의 소재로 대체할 수 있어 앞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좀 더 예쁘게, 좀 더 멋지게!

- ✦ 제품에 따라서 천의 재질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이나 원형 포장에는 인조견 등 부드러운 소재가 어울린다. 사각 박스 등에는 뽀뽀한 질감의 천이 어울린다.
- ✦ 보자기는 접을 수 없으므로 모서리 부분의 시접처리가 깔끔해야 정돈된 느낌을 준다.
- ✦ 다양한 액세서리로 갖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리본이나 코사지 등을 이용하면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노리개나 매듭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느낌을 준다.
- ✦ 테이프나 글루건 등을 이용하지 않아서 매듭을 묶을 때 단단하게 매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연 강사 황인자

일본 포장스쿨인 Nokko Wrapping School 2급 instructor 자격 획득  
 일본 Lanlana Camera Culture School 최고위 포장코디네이터 자격 획득  
 황인자 포장연구소 대표  
 롯데백화점 일산점 포장코너 대표  
 (사)한국선물포장협회 이사장  
 크라운 베이커리 포장담당 고문

## 나도 할 수 있다! 기초 선물포장법

10월 18일에는 (사)한국선물포장협회의 황인자 이사장의 강연으로 '기본 선물 포장법'이 소개됐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포장에 익숙하지 않은 수강자를 위해 기초적인 지식만 알면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선물포장을 주로 선보였다. 실연된 작품들은 직사각형 상자를 포장하는 '캐러멜 기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우'를 이용한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황인자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포장기법에 미숙한 초반에 포기한다"며 "그 단계만 지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제품을 데코레이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품의 맛과 모양이 고급화·평준화되는 요즘 다른 제과점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포장이다. 특수절편 아니라 평상시 제품 포장이 점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가꾸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이게 무슨 뜻인가요?

- ✦ 캐러멜 포장법 : 보통 직육면체 상자를 포장할 때 사용하는 포장법.
- ✦ 보우(Bow) : 리본을 이용해 만든 완성된 모양 자체를 일컫는 말.  
 예) 나비 보우, 풍뎉 보우 등
- ✦ 루프(Loop) : 보우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고리.
- ✦ 십자매기 : 리본으로 상자의 중앙선을 따라 매는 방법.



실연 강사 이현수

화수회 랩핑스쿨 회장  
 모아디자인본부 강사  
 일본마미플라워 디자인스쿨 등록 강사  
 마플라워본부 강사  
 동아문화센터 강사  
 향렐루야교회 꽃꽂이 선물포장 강사

## 산타클로스 선물 & 풍성 부직포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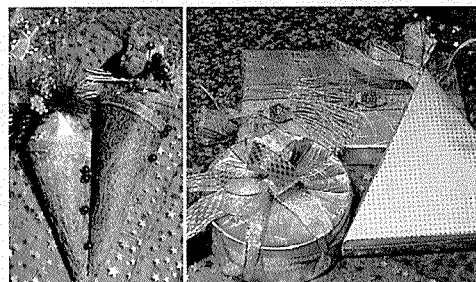
10월 17일과 19일은 화수회 랩핑스쿨의 이현수 회장의 '크리스마스 다각형 포장'과 '부직포를 이용한 포장'에 대한 강연이 각각 이어졌다. 성탄절 전통 색상인 녹색과 빨강을 이용한 다각형 포장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제과인들이 만들기 쉬우면서도 포인트를 살릴 수 있는 기법을 알려주었다.

이현수 회장은 "화려한 색과 데코레이션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돋울 수 있는 포장법을 실연했다"며 "포장의 장식적인 기능을 최대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제과점에서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료 중 하나인 부직포를 이용한 포장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부직포는 간단한 방법으로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며, 재료비도 저렴해 명절 기획상품 포장에 자주 쓰인다. 포장법과 보우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 역시 부직포의 장점.

이 회장은 "루프가 많은 보우를 사용하면 포장이 한결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부직포 포장의 특징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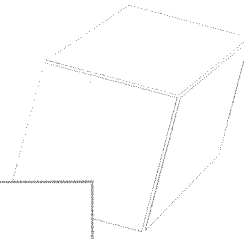
### 크리스마스 제품을 빛내는 액세서리



- ✦ 크리스마스 제품 포장은 화려하게 꾸며 한껏 들뜬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 금, 은색 등 강렬한 색의 포장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포인트가 될 만한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톡톡 튀는 느낌을 준다.
- ✦ 타슬, 오너먼트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은 장식물 하나만 이용해도 효과 만점!



# Siba 따라해봅시다!



## 간단 보자기 포장

1.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두 귀를 올려 서로 엇갈리게 양쪽으로 잡아당긴다.
2. ①의 귀를 각각 가까운 쪽의 귀와 매듭을 묶어준다.

## 리본과 매듭 포장

1.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두 귀를 단단히 묶는다.
2. 남은 두 귀를 서로 엇갈리게 당긴 후 그 사이를 리본으로 묶는다.



## 모던 코사지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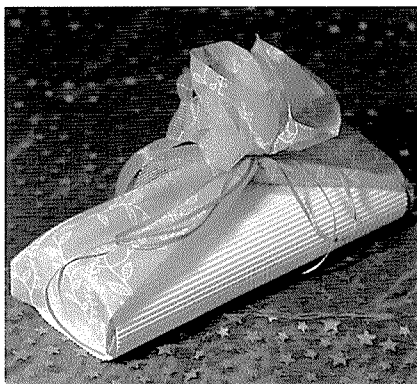
1. 보자기 한 가운데에 상자를 놓고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귀를 단단히 묶어준다.
2. 남은 두 귀 중 위쪽 귀는 아래로 내리고 아래쪽 귀를 올린 다음 끝을 아래로 접어준다.
3. ②의 여밈 부분을 코사지로 고정시킨다.



## 보자기식 변형 사각부직포 포장

부직포 재단 - 상자를 대각선으로 놓았을 때 각각의 면이 두 배 정도 되도록 재단한다.  
 장식 부직포 - 재단하고 남은 2장의 부직포를 12cm 넓이로 잘라 잘게 주름을 만들어서 끈으로 묶는다.

1. 서로 다른 색의 부직포 2장 위에 상자를 대각선으로 놓는다.
2. 상자의 아랫면의 부직포를 올려 상자에 붙이고 윗면의 부직포를 내려 시접이 그대로 밖으로 나오도록 붙인다.
3. 나머지 양면의 부직포를 상자 가운데로 모아 서로 엇갈리게 한 다음 '장식 부직포'를 묶은 뒤 리본으로 나비 보우를 만들어 함께 묶는다.



## 골판지 부직포 포장

골판지 재단 - 27cm×25cm (가로×세로)  
 부직포 재단 - 27cm×80cm (가로×세로)

1. 부직포의 가운데 길이 정도에 골판지를 놓은 다음 골판지의 오른쪽, 위, 아래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다.
2. 포장할 물건을 올려놓은 뒤 골판지 양면을 모아 고정시킨 다음 부직포의 위, 아래쪽을 골판지 앞면으로 모은다.
3. 부직포를 리본으로 묶어 더블 타이드 보우를 만든 다음 가는 리본을 묶어준다.

### 리버시블 응용포장

#### 양면 포장지 재단

가로 : 상자의 둘레 + 상자의 넓은 면 가로

세로 : 상자의 높이 + 1cm

1. 상자의 넓은 면 가로만큼 포장지를 재단한 다음 재단한 포장지를 반대쪽 면이 보이도록 돌려 나머지 포장지에 붙인다.

2. 반대쪽 면이 보이는 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고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3. 캐러멜식으로 상자를 포장한다.

4. 리본은 상자에 십자매기해서 나비 보우로 묶어준다.

5. 나비 보우 위에 다른 리본으로 더블 타이드 보우를 묶어준 다음 액세서리 등으로 마무리한다.

### 포켓포장

#### 양면 포장지 재단

가로 : 상자의 둘레 + 2~3cm 시접

세로 : 상자 높이의 두 배 길이 + 여유분

1. 포장지에서 상자 높이의 2/3 되는 지점을 표시하고 그 선을 따라 포장지를 뒤로 접는다.
2. 상자를 캐러멜식으로 포장한다.
3. 상자를 뒤집은 다음 포켓 위로 리본을 두르고 나비 보우를 만든다.
4. 포켓 속에 카드 등을 꽂아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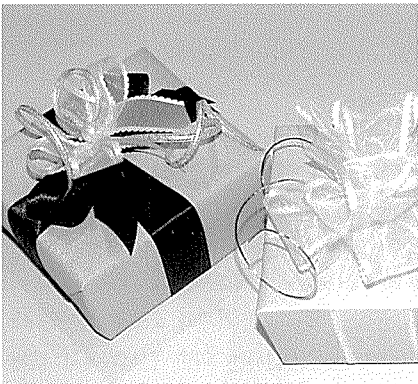
### 스퀘어 포장과 풍풍보우

포장지 재단 - 상자를 대각선으로 놓았을 때 상자 높이보다 위, 아래 각각 2~3cm 정도 여유분이 남도록 정사각형으로 자른다.

1. 상자를 포장지의 대각선 방향으로 놓는다.
2. 포장지의 한 모서리를 접어 올린 뒤 양 옆에 남는 부분은 각을 맞춰 안으로 접어 넣는다.
3. 같은 방법으로 모서리를 접을 때 옆에 남는 부분을 각을 맞춰 안으로 접어 넣어 주면서 나머지 모서리를 접어 올린다.
4. 마지막 모서리는 안쪽으로 살짝 접고 테이프로 붙인다.
5. 상자를 리본으로 십자매기해준 다음 가운데 부분에 '풍풍보우'를 올려 함께 묶어준다.
6. 겹쳐있는 '풍풍보우'의 루프를 좌, 우로 빼내 풍성하고 둥근 모양을 만든다.

### 풍풍보우

1. 리본을 5cm 정도 남기고 손을 중심으로 실타래 감듯이 7~8번 감아준다.
2. 감겨진 리본을 세로로 세운 다음 팽팽히 당기고 윗면과 아랫면의 양 끝을 가위로 살짝 잘라준다.
3. 리본을 자르고 남은 윗면과 아랫면의 부분을 서로 맞붙여준 뒤 가운데부분을 철사나 끈 등으로 단단히 묶어준다.



### 트리장식 낮은 사각 포장

양면 포장지 재단 - 가로 : 상자 둘레 + 상자 위쪽 면

세로 : 상자 높이 + 상자 길이

1. 상자 윗면을 1/3정도 남겨놓고 포장지로 감싸준 다음 나무를 표현할 면을 반만 보이도록 접어준다.
2. 접어준 반쪽 면을 뒤로 접어 일정한 간격으로 가위집을 내고 가위집 낸 부분을 다시 안쪽으로 접어 나무모양을 만든다.
3. 상자의 양끝은 캐러멜식으로 포장한다. 이때 한쪽 시접은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시접의 양쪽을 가운데로 모으면서 접어주고 양면 테이프로 이용해 상자에 붙인다.
4. 금사 리본으로 상자를 매준 다음 위쪽에서 나비 보우를 만들고 구슬을 매달아 장식한다.

